

“푸조 308 스마트 HEV, 48V 배터리로 순수 전기주행”

스텔란티스코리아

변속기에 전기 모터 결합
프랑스 문화·기술 담아내
방실 사장 “피겨스타 차준환 닮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방실 사장이 9일 ‘푸조 스마트 하이브리드 테크 아카데미’에서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

“동급 경쟁 모델이 잘 훈련된 군인 같은 느낌이 강하지만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피겨스타 차준환과 닮았습니다”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사장은 9일 개최된 ‘푸조 스마트 하이브리드 테크 아카데미’에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차세대 피겨스타 차준환 선수의 움직임처럼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도 스피드한 움직임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방 대표가 극찬한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9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해치백 시장의 강자 ‘308’ 모델에 ‘스마트 하이브리드(HEV)’ 시스템을

적용한 차량이다. 푸조에서 정의하는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통상적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분류되는 48V(볼트) 배터리를 장착하고도 순수 전기 주행이 가능한 기술이다. 순수 전기로만 도심 주행을 조건에서 전체 주행 시간의 50% 이상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똑똑한 하이브리드 솔루션이다.

푸조의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1.2L 퓨어테크 가솔린 엔진과 새롭게 조화를 이룬 e-DCS6 기어박스내에 전기모터, 컨버터, 트랜스미션을 통합 설계한 구조적 장점으로 인해 가능해졌다. 전기 모터는 최고 출력 15.6kW, 최대 토크 55Nm 힘을 갖췄으며 구동 배터리는 0.89kWh의 에너지를 가진 수냉식 48V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했다. 여기에 최고 출력 100kW, 최대 토크 230Nm의 힘을 가진 직렬 3기통 1.2L 퓨어테크 가솔린 엔진을 조합했다.

스마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약 1100kg의 견인력을 갖췄으며 낮은 RPM(크랭크축회전수)에서 반응성이 뛰어

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 내연 기관 엔진(AT8STT) 대비 22g 줄었다.

강동훈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술 이사는 “기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엔진 보조에 그쳤다면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변속기에 전기모터를 결합해 순수 전기모드 주행이 가능하다”면서 “도심 주행시 최대 30km 이하 서행 구간에서 주행 시간의 최대 50%까지 전기 모드 주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는 운전석 아래 배치해 여유로운 실내 좌석과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디자인 부분에서는 푸조 특유의 프랑스 디자인과 문화, 기술을 감각적으로 해석한 전형적인 예술을 담아냈다. 또 푸조는 하이브리드 시장 공략을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국내 소형 SUV의 경우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간 평균 1400만원 가량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모델과 가격 차이를 31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에어컨 판매량 50% ↑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가정용 에어컨 시장에서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1월부터 3월까지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는 스탠드형 에어컨의 판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월 기준 스탠드형 모델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0% 더 팔렸다. 벽걸이형과 창문형도 고루 수요가 늘며 전 제품군에서 호조를 보였다.

이러한 판매 호조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제품 출시에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비스포크 AI 무풍 콤보 갤러리’를 비롯한 총 4종의 2025년형 AI 에어컨을 선보였다. 신제품은 AI가 자동으로 실내 환경을 조절하는 ‘AI 쾌적’, 최대 30% 에너지 절감을 돕는 ‘AI 절약모드’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이혜민 기자 hyem@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 민관 합산 1조 이상 투자

산자부 안덕근 장관 등 350명 참석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예정

정부가 오는 2030년 휴머노이드 최강국을 목표로 40개에 달하는 국내 최고의 기업들과 대학교들 등 국내 최고 수준 기관들로 ‘드림팀’을 꾸려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합에는 국내 주요 로봇 제조사와 부품 기업, AI 연구진, 수요 기업 등 약 40여개 단체가 참여한다. 정부는 이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R&D, 펀드 조성, M&A 등 민관 합산 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테슬라와 피규어AI, 아마존, MS,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뿐 아니라 유니트리, 유비테크 등 중국 기업들까지 대규모 투자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으나 투자 규모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를 따라잡기 위해 휴머노이드 생태계의 역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및 휴머노이드 참여 기업 대표들이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식에서 K-휴머노이드 연합 MOU 체결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결집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학·연 역량을 모으는 K-휴머노이드 연합을 조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나뉘어 주요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먼저 서울대 AI 연구소, KAIST, 고려대 등 AI 전문그룹은 2028년까지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로봇 AI’를 개발한다. 2028년까지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로봇 제조기업은 실제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연구진은 이를 학습시켜 정밀한 AI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로봇 제조사, 부품사 기업은 휴머노이드 하드웨어(HW) 개발을 위해 연구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정교한 물체 조작이 가능한 힘·토크 센서, 손 감각을 구현하는 촉각 센서, 가벼우면서 유연한 액추에이터 등 핵심부품도 개발한다.

글로벌 최고 사양을 가진 휴머노이드 HW 개발을 위해 R&D에 집중 투자한다. 연합은 무게 60kg 이하, 관절 자유도 50 이상, 하중 20kg 이상, 이동속도 2.5% 이상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양을 목표로 한다. 로봇 부품사들은 고감도 센서, 경량 액추에이터, 고정밀 감속기 등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한다. 산업부는 연 2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실제 산

업환경을 모사한 실증 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이다.

AI 반도체, 모빌리티용 배터리 등 개발을 위해 리벨리온·DEEPIX(반도체), 배터리 3사(SK온·LG엔솔·삼성SDI) 등 분야별 전문기업이 참여해 연합 내 로봇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산업부는 온디바이스용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금번 연합 출범을 계기로 로봇 뿐 아니라, 인공지능, AI반도체, 배터리, AI 컴퓨팅 등 AI 관련 유망산업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LG전자

최고 전문가 20명 발탁

LG전자가 미래 핵심 경쟁력 확보를 이끌 사내 최고 전문가 20명을 새롭게 발탁했다.

LG전자는 10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새로 선발된 연구위원 15명·전문위원 5명의 임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무 전문성, 성과, 전략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엄격하게 선정됐으며, 선발 즉시 독립적인 연구 환경과 별도 보상을 받는다.

올해 연구위원 중 절반 가까운 7명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선발됐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임명식에서 “연구·전문위원은 LG전자의 지속 성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며 “한계를 돌파하고 후배들의 성장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민 기자

LG이노텍

동반성장 상생데이 성료

LG이노텍이 100여개 협력사와 함께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 협력 강화’에 나섰다.

LG이노텍은 지난 9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에서 ‘2025 동반성장 상생데이’를 열고, 주요 협력사와 ‘2025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반성장 상생데이는 LG이노텍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간의 협력을 다지는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해 왔다.

협약에 따라 LG이노텍은 금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 143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에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혜민 기자

LG화학, ‘차이나플러스 2025’ 참가

지속가능존 등 6개 전시공간 구성

LG화학이 친환경·고부가 소재로 글로벌 고객 사로잡기에 나선다.

LG화학은 오는 15일부터 4일간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고무 전시회 ‘차이나플러스 2025’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LG화학은 ‘화학의 힘으로 가치를 높인다’를 테마로 총 6개의 전시 공간을 구성해 친환경 기술력과 프리미엄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

‘지속가능 허브 존’에서는 고객의 제품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드롭인 솔루션을 선보인다.

‘패킹 존’에는 LG화학의 독자기술

로 개발된 ‘유니커블’ 소재가 적용된 단일소재 포장필름이 전시된다.

‘모빌리티 존’에는 고풍택, 내열성·내후성을 갖춘 고성능플라스틱(ASA)로 만든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과 차량 인포테인먼트 패널 등에 사용되는 고강성·전자파 차폐 성능의 디스플레이용 엔지니어링 소재를 선보인다.

‘에너지 존’에서는 전기차 충전 케이블용 초고중합도 PVC(폴리염화비닐) 등의 고부가 제품을 전시해 글로벌

시장과 고객 공략을 가속화한다.

‘리빙 존’에는 고급 가전용 내외장재인 저광·무광 ABS(고부가합성수지)와 초고중합도 PVC가 적용된 고성능 친환경 인조가죽 등을 전시한다.

‘메디컬 존’에는 뛰어난 내열성과 생체적합성으로 얼굴에 직접 닿아도 안전한 투명 PC(폴리카보네이트)가 적용된 홈케어 LED 마스크 등 의료·뷰티 분야의 프리미엄 제품을 전시한다.

/차현정 기자 hyeon@